

하여 12회에 걸쳐 1,200여명의 수료자를 내었다.

농촌에는 내 고장을 아름답게 살기좋은 마을로 만드는데 힘쓰게 하고 있다. 도시의 공업화로 인하여 농촌 젊은이들이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정신적인 계몽사업을 전개하여 오고 있다.

고려대학교 식량개발대학원에 위탁하여 농촌 청년들을 교육시켰다. 주로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과 정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농촌환경보전운동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고 토질, 수질, 공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각 지역을 순방하여 농업현장에서 문제된 점을 발견 해결하는 방법으로 농대교수님들을 모시고 농촌지역주민들과 의견교환을 하기도 했다.

상록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은 그 군내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마을이 되었고 또 젊은 청년들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남아 있게 되었다. 그 예로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 어론리, 가야 1리 등의 마을들은 상록회가 조직되어 군내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마을이 됐다.

불행히도 1981년 9월 22일 초대 회장이시던 이정웅 회장이 병환으로 갑자기 서거하게 되어 이러한 활동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제7대 회장으로 黃德浩 會長 (승의여자전문대 교수)이 취임하여 다시 활발히 常綠樹運動이 全國적으로 活成化되기 시작하였다.

黃會長은 취임하면서 우리것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도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전국지역의 상록회 회원들은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가로수에 무궁화를 심기 시작하였다. 무궁화 묘목을 길러 전국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더욱이 1984년 겨울에 전국대학생 통일염원 200Km대행진을 강원도 삼척 죽서루에서 출발하여 도보로 7박 8일동안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 갔었다. 행진을 하면서 동해의 아름다운 경관과 아직 오염되지 않은 국토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하여 통일의 의지를 불태게 했다.

1983년 8월 5일부터 3일간 경기도 가평에서

서울시내 국민학교 5.6학년생 150여명을 무료로 무궁화 여름캠프라 이름붙여 실시하였다. 이는 도시의 생활권에서 대 자연의 환경에 접하기 어려운 극빈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행해졌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심성도야를 피하고 자연의 고마움을 알게 하고 자연보전의 필요성을 어릴때 부터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금년까지 3회에 걸쳐 무궁화캠프 때는 국민학교 학생 200명, 중학생 158명, 고등학교 학생 60명 계 418명, 자원봉사 지도교사(각 대학교 학생) 55명이나 참가하여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국교와 마장국교 두 곳에서 실시하였다.

주로 환경미화운동 즉, 주위의 흩어진 유리병, 쓰레기 수거를 비롯하여 동식물의 관찰, 보호 등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현지에 거주한 학생들 즉, 가평군내 목동국교생, 가평중학교 학생들도 서울의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하면서 지역사회의 환경미화운동에 참여 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을 그들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하였다는 점이 매우 뜻이 있었다 하겠다.

금년도 7월 22일 환경미화운동(K.K.B ~ Keep Korea Beautiful)이라는 단체를 조직 발족하여 상록회 내에 설치하였다. 환경보전협회에 게시는 안기희 교수의 지도를 받아 우선 전국 각 대학교 내의 환경보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하여 1차 세미나를 강원도 삼척군 미로면 천은사에서 가졌다.

세미나 내용은 「환경보전운동의 개념」에 대하여 안기희 교수께서 강의하였고 참석한 대학생 50여명, 그리고 강원도 삼척군, 동해시, 명주군내에 있는 상록회 회원 3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토론회도 가졌다. 「우리가 시작한 오염, 우리가 막아 낼 수 있다」는 표어 아래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것에 뜻을 모았다.

한국 환경미화운동(K.K.B)을 시작하게 된 취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과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미화는 물론 자연환경을 쾌